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오바다서-

## 시온에서 구원

(오바다 1장 15 - 21절)

역전이란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갖은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일은 아무 것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에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에서에 쫓겨 외삼촌 집에 가서 20여년이 넘도록 고생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조국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그 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반면 에서는 고향에서 많은 양떼와 가축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후손은 매우 불행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렸고(창 37:1), 에서의 후손은 성읍들에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황폐케 되었습니다(겔 35장).

오바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오바다의 예언에 의하면 에돔은 흠여지고, 이스라엘은 흠여지나 다시 모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리적 안전을 구가하고 동맹군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며 형제를 천대하고 형제에게 잔인했던 에돔의 고만 죄 때문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추수를 없게 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가난의 징계를 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이방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거니와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가깝다’는 말은 여호와의 날이 더디 온다고 해도 에돔에게는 연기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 즉시, 혹은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회개하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회개하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15절).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남을 판단한 그것입니다. 남에게 관용을 많이 베푼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관용의 잣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신나서 바라보던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16절).

죄악의 잔을 마신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며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천대하고 억울하게 한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 3. 축복의 날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17절).

시온 산은 교회,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야곱 족속이 붙어 있다는 것은 심판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에서 족속은 불에 타는 지푸라기가 될 것을 말합니다(18절).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은 모두 불태워질 것이고 그들에게서 세상적인 것들이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원수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적이 아닌 문자적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진정 회복할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하는 날, 그 날이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며 이때 영적 이스라엘도 죄의 권능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승리를 말합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21절).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에서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에돔은 힘 있는 국가로 변명을 누리는 것 같았으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온산을 떠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1. 만국을 벌하는 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15절).

여호와의 날에는 에돔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네겟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과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와 베냐민의 길르앗, 그리고 사르밧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19절).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이나 지역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임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 2. 가까운 날

2천 5백 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도 2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 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가깝다’는 말은 여호와의 날이 더디 온다고 해도 에돔에게는 연기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 즉시, 혹은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

# 2003 홍해작전 시작되다

## 성도의 기도로 본당을 뜨겁게 달궜다

6월6일 현충일 새벽 5시 2003년 홍해작전이 시작되었다. 수없이 많은 홍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덤벼드는 이때에 기도할 제목을 가진 성도들의 발걸음은 교회로 향하여 마침내 본당을 가득 메운 기도의 열기로 2003 홍해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금번 홍해작전의 교재는 2002년부터 계속 공부하여오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으로 65강부터 시작되었다.

있다. 기도할 것이 산적해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도할 처소와 시간 그리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6월25일 승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무릎이 쉬지 않도록 기도한다.

### <금주의 홍해작전>

#### <유년부>

- 13일(금) :과별 주력 금요기도회 - 1학년 과장 및 교사
- 14일(토) :홍해작전 토요 축구전도 퍼레이드

#### <초등부 및 수요 어린이 예배부>

- 8일(주) :홍해작전 교육:(홍해도하 영상물 시청)
- 13일(금) :MB.TI(성격유형검사) workshop
- 각 반별 기도동아리 만들기

#### <어린이 찬양 예배부>

- 홍해작전 어린이 기도회(매주일)

#### <중등부>

- 8일(주) :홍해작전 학생 기도회
- 14일(토) :학교 앞 토요전도 및 신우회 모임

#### <고등부>

- 14일(토) :학교 앞 전도 및 학교 심방

#### <대학부>

- 14일(토) :있는 양 찾기 작전, 여름 수련회 준비 기도회(3시, 701호)

#### <장년부>

- 나 홀로 집에 양 찾기 작전

#### <새가족부>

- 13일(금) :전체 연합기도회(오후 7시30분)

#### <신촌 가정부>

-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 다니엘 기도

#### <사랑부>

- 13일(금) 교사 기도회

#### <예비다부>

- 매일 홍해작전 수화 통일
- 13일(금) :금요 십야 기도회

#### <장년부>

- 13일(금) :장년부 교사연합기도회(오후 7시 30분 602호)

## 호국의 달 안보 특강

20일(금) 오후 7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

우리교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연합으로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20일(금) 오후 7시 30분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의 희박한 안보의식을 다시금 고취시키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특강 강사로 서는 이는 우리교회 이갑진 장로(12

교구, 전 해병대 사령관)로 '배수의 진'이라는 주제 하에 북핵 문제로 인한 안보위기가 커져가는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 등 다양한 내용의 강연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한다.

## 목회자 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마치며

찬양대 양성반을 수료하며

을 가지시기를 바란다.

### 김도훈(13교구)

'찬양은 정말 은혜롭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보자' 새가족부를 수료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싶었지만, 음악 공부라고는 고교시절 이후 해본 적이 없었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교육을 받고 싶었던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찬양대 양성반에 등록하게 되었다.

호흡과 발성 등 음악의 기초 이론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수월 시립 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으로 귀를 열 수 있는 산 교육의 기회도 마련하시며,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해주신 박정선 집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모든 찬양대원들과 함께 충실한 연습으로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 더욱 값진 찬양을 드리고 싶은 열정을 가진 모든 분들이 9월경에 있을 예정인 차기교육에 참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 23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며

#### 여영숙 권사(3교구)



10주 동안 월요일 마다 계속된 목회자 세미나에서, 주의 종들을 위해 식사준비를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사회 회원들이 합심하여 매주 새로운 식단을 의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섬김의 기쁨'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권사회 회원들이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룬 채 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8층은 우리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모든 시설이 최신

## 6월 학습 세레식

18일 수요일, 1, 2부 예배시

6월 학습 세레식이 18일 수요일 1, 2부 예배시 거행 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오늘 1, 2부 예배 후, 세레자를 위한 교육은 15일(주) 1, 2부 예배 후 602호실에서 각각 실시하며 미참한 성도대상 추가 교육은 16일(월) 오후7시에 있다. 문답은 17일(화) 오후 7시 602호에서 실시한다.

## 새가족부 요리문답반 2기수강생 모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반(지도: 김재진 목사)을 공부하고 있는 새가족부에서는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을 원하는 성도는 주일 2부 예배 후 603호실에서 등록하기 바란다.

## -고등부 소식-

1. 제 16회 학생 찬양제에서 금상수상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노회중고등부연합회 주최 제 16회 학생 찬양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6월14일 과천교회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 시상과 찬양이 있다.



2. 모세 기도회 : 6월 6일에 고등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한 모세 기도회가 오정식 목사의 인도로 있었다. 학부모에게는 나일강에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띄우듯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하며, 교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학생에게도 성령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길,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가졌다.

3. 고등부 학교 앞 전도 및 심방 : 홍해 작전기간 중 매주 수요일 또는 토요일 각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앞 전도와 학생 심방을 할 계획이다.

- 6/11(수) - 중대부고, 6/14(토) - 경기여고,
- 6/18(수) - 단대부고, 6/21(토) - 진선여고
- 6/25(수) - 휘문고, 6/28(토) - 은광여고

식으로 잘 갖추어진 넓은 주방이 있고, 언제나 밝은 얼굴과 맑은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두 분의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분 집사님의 도움으로 정성을 다하여 식사를 준비 하였습니다. 이 곳에 모여 함께 식사봉사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잊어버리고 기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을에 있을 24학기에는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식단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권사회에서는 기도로서 준비하겠습니다.

# 장로 피택을 받으며...



**박두영 집사(1교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낮고 친한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인생의 황혼기에 장로로 피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며 선배 장로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부끄러움이 없는 장로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며 더욱 낮은 자로 겸손함과 사랑, 섬김의 도리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선 집사(11교구)**



온유와 겸손의 분을 보이신 주님만 본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교만이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지식과 명예로 인하여 또 물질이나 세상 것으로 인하여 교만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던 그 첫날의 믿음과 각오로 주님과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떠돌고, 새로운 영을 받아 새사람이 되어 목사님의 목회방침을 따르며 또 먼저 섬긴 장로님들께 배우고 공부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만이 큰 힘이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년 전 "하나님 잘 섬기어라"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의 말씀을 늘 제 가슴에 담고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인 장로(5교구)**



썩은 막대기만도 못한 부족한 것을 다시금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

랑과 은혜에 송구함과 감사할 뿐입니다.

만 29년 전에 결혼의 날로 5월25일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17년 전 같은 달, 같은 날에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다시금 같은 날에 시무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감독의 직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동안 기도와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목사님, 교역자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기섭 장로(12교구)**



선교여행중 이탈한 마가를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듯 이번에 다시 저를 불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 직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짐을 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생명까지도 단 마음으로 바치는 직분임을 잘 압니다. 특권은 커녕 희생을 앞세우며,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실천하는 자격임도 잘 압니다. 주께서 또 다시 부르셔서 이 길을 가도록 명하셨으니, 이제 무엇을 지체하겠습니까?

남은 6개월 동안 당회의 지도아래 필요한 교육을 앞장서서 받겠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권면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한 처음 가졌던 열심을 회복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고, 다짐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두 번 씩이나 주신 기회인데 어찌 마음이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쓸만한 기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조 정식 집사(13교구)**



피택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 장로님, 교육자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 부족한 저를 세

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택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과 기도,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모든 일을 내가 먼저 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정직하고 불만 불평 없는 순종하는 일꾼 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있을 교육을 잘 배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으로 교회의 일치와 성도 앞에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식 집사(13교구)**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저희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해주시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락방장 권사님, 교회 등록 첫

달부터 십일조 헌금을 내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하여 눈물겨운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누님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연약할 때마다 제 곁에서 위로와 기도로 내조해준 저의 아내 김신영 집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우리 나오는 헌신과 기도를 다 이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시민을 양성하고 만민에게 전도하는 일, 빈약한 자 구제하라는 교회 목표에 따라 모든 봉사과 헌신을 이 말씀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나의 행위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부르신 것을 깨달아, 항상 신중하고 단정하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서울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병상에서 만남 주님



**서경숙 집사(11교구)**

라일락꽃이 향기를 다할 즈음 나는 추풍낙엽이 되어 있었다.

이미 유치원 원장도, 아내도, 애들 엄마의 역할도 상실한 채 나는 어느 방향으로 구를지 모르는 낙엽이 되어 주

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에이 그깟 건강쯤이야"이렇게 늘 자만하던 나는 동네의 2차 진료기관을 열흘 입원한 끝에 황달이 너무 심하게 와서 미국에서 들여와 임상실험중인 신약을 쓰기 위하여 처음 입원했던 병원의 권유로 3차 진료기관인 서울 A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그날로 다시 입원을 하여 집 떠난 지 1달

을 훌쩍 넘기고 있다.

거의 한달을 물만 빼고 먹기만 하면 주, 야로 토하던 나는 주님께서 주신 육신의 일부를 잘 돌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괴로움에 बे계잇을 적셨지만 위궤양과 황달을 겸한 급성 간염은 병명보다는 훨씬 더 깊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몸이 극도로 탈진된 상태여서 목사님의 몇 차례의 심방에도 말씀들이 아련히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심방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사 41:10) 그리고 침상에서 읽은 잠언서는 이미 큰 위안이 되고 있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며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잠 18:14)

감사합니다. 주님. 그간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이 기회가 제가 주님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로 삼아 주신다면 달게 그리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제 많은 진전이 있어 죽을 넘기고 약을 투여 받으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절대안정'이라며 면회도 사절했으나 기도와 함께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체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또한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소중함과 서로의 필요성을 절감케 해준 남편 이승우 집사께 뜨거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 2003 홍해작전 진군 시작하다

2003년 6월6일 새벽 4시 30분!

어둠을 뚫고 새벽 홍해작전의 준비 호각이 울렸다.

은 교회가 홍해를 건너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발걸음은 훈련된 군단들의 일사분란한 움직임과도 같았다.

홍해작전 준비위원들은 예배시작 1시간 전에 교회에 모여 예배당 안내와 차량 주정차 안내 등 20일간의 홍해를 건너는 기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4시부터 차량봉사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차량 안내위원들, 새로 피택 받으신 6분의 열면 차량안내는 홍해작전의 개전이 성공적인 준비 임에 틀림없다.

예배당안으로 들어오니 새벽을 깨우는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로 성령님께서 미리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최고의 분위기 처럼 잔잔한 물이 흐르는 듯,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속속히 들어와 자리를 메우는 성도들은 유아부

서부터 장년 5부, 에바다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새벽을 머리에 이고 이미 승전의 기쁨이 확산되어 갔다.

5시 정각 홍해작전 첫날 예배가 시작되자 2층과 3층 예배실을 거의 다 채운 약 천여명의 성도들은 먼저 7대 공동 기도제목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를 드린 후 지난 2002년 홍해작전 때부터 계속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첫발을 떼기 시작하였다.

이중윤 목사님은 이날 65장 '만약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사에 동참케 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강해하시며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며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사임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신행일치의 삶으로 말씀을 사랑하여 정말로 안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 갈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를 조용히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미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전을 하였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넘쳐나 그 무릎이 썩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신행일치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인 우리 서울교회를 통하여 이날 부른 첫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어둠던 이 땅을 밝히고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크나큰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확신한다.

유태서(편집부)

## 동정

■ 이중윤 목사는 12일(목) 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운동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일본 교세 신학교 하시오모도 교장인술하에 졸업반 학생 6명의 방문을 받고 복회상담을 한다.

■ 이사: 11교구 박경규집사, 정연택집사, 경기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521번지 태영A. 103/603 tel)031) 925-1068

12교구 이인수집사, 나기태집사, 경기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496번지 동일하이빌A 2차 204/106 tel) 031) 308-9858

13교구 교육경 윤동수 집사 은마 apt 29-603로 이사

■ 준공: 배재송 임본도 성도(3교구) 엘람빌 용인시 역북동 386-6

■ 개업: 송순화 집사(3교구) 둥근 달 한식, 분식 역삼동 812-1 569-5682

■ 이장: 문주현 성도(3교구) (주)엘디엠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아미고타워 9층 031-622-1000

■ 금주의 식사: 이관규 장로 이순영 집사(범사에 감사하며)

##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인준홍 성도(1교구)

먼저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서울교회 새가족을 맞이하여 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평화로운지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근엄하신 모습은 평안함을 주셔서 또 한 번 감사하며 맡겨진 제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시며 보살펴주시는 새가족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8주간의 새가족부를 지나면서 전도사님,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부모님과 여러 어른들이 나를 늘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실 때 제 스스로의 삶은 그렇지 못했으므로 늘 가슴이 답답했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울타리 속에 있지 않은 버려진 아이들을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지요. 서울교회 새가족부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지금 이 나라

의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울타리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나 싶어 가슴이 아프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교회 새가족부에서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고 나의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울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새가족부를 축복하시고 70인 전도대를 통해서 서울교회에 오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계속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므로 서울교회 본당의 모든 자리가 예배시간마다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는 서울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3 홍해작전에 큰 은혜받고 7대 기도제목 상달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70인전도대 활동 위하여
4. 오르간 설치 중 사고 없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